사탄의 '술(酒)'프로젝트

(창19:30~38)

30.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3.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탄의 '술(酒)'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탄의 술(酒) 프로젝트'
탈무드에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 너무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 바쁠 때는 대신 술을 보낸다.'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에 맞서는 것이 사탄의 술 프로젝트입니다.
맨몸 프로젝트는 이 세상 것들을 롯에게서처럼, 욥에게서처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 육체의 상황이 맨몸 되기를 바라셔서 이러한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맨몸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상황에서 롯이나 욥에게서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버리실 때에, 그 맨몸 프로젝트의 본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맨몸 되기를 바라셔서 마음이 꼭 붙들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맨 마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맨 마음, 깨끗한 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롯에게서 일어난 일이 이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가 무효화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를 우리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가 무효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몸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대신에 사탄의 술 프로젝트가 왕성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롯이고, 맨몸 프로젝트를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케이스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옆에 롯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롯의 자손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뜻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술로 야기된 일이 본문에 나옵니다.
'술(酒)'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뜻 깊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술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
과일이나 꿀, 수액이나 즙 같은 것들은 자체 내에 당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야생 효모들이 들어가면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소위 썩는 것인데 과일자체가 썩는 것이 아니고, 효모가 들어가서 썩게 되는데 썩는 과정을 발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효가 될 때에 그것이 술이 됩니다.
그리고 곡식 같은 것은 녹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썩는다고 해서 저절로 술이 되지는 않아요. 이 녹말을 당분으로 바꿔주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술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과일의 썩은 물을 먹어보고 술맛을 알게 된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도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다 발견해 낸 것이 무엇이냐?
최초에 곡식으로 술을 만들 때에 곡식 속에 있는 녹말을 당분으로 만드는 당화 작용을 무엇으

로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입으로 씹었습니다. 그러면 침 속에 당화 효소가 있어서 곡식을 씹은 다음에 다시 뱉어서 그것으로 술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단계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 지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담아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과일이 자연적으로 술이 될 때에도 바위의 움푹 팬 곳이나 나무 구멍 같은 곳에 과일들이 모아져 썩으면서 술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담겨질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구작주'라고 입으로 씹어서 뱉은 것을 발효시킬 때에도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담겨져 있어야 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릇이 필요하고, 당화 작용을 할 수 있는 효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인간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사탄이 술 프로젝트를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감행한 것이 술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술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술 프로젝트가 완전히 성취되어서 먹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상징적으로 롯에게 나타난 일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피신했습니다. 소알에서 두려운 일이 많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다시 산으로 피신합니다. 구출되는 주제에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갈 것이지…
그런데 두 딸이 소돔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못돼먹고 이상한 것만 배워서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다 멸망하고 말았으니 남자는 없고 자손은 낳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외에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잔뜩 취하게 만든 다음에 동침해서 임신을 해보자고 합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이 그야말로 술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아버지는 인사불성이 됩니다.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다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술에 취했으면 동침을 하는데 롯은 자기가 누구와 잤는지도 모르고 잤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두 딸이 아이를 낳아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이야기가 바로 술 프로젝트의 완결판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냐?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들이고, 롯의 후손이 누구냐? 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자의 삶의 영역 안에 롯의 자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먹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술 프로젝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맨몸 프로젝트가 실제로 육체의 맨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맨몸을 말했던 것처럼, 술 프로젝트도 육체가 술에 취한다는 뜻 보다는 더 앞서서 마음이 술에 취한다는 의미에서 술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술 프로젝트라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도 기쁨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 이야기를 할 때에 게이라는 말 속에는 기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성애라고 하는 말을 기쁨과 연관 지어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기쁨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쁨은 엄밀하게 말하면 피조물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현상은 피조물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세계가 있기 전, 창조 이전에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가운데 인간을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
인간의 마음을 비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채워야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에 따라서 만족과 기쁨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원하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러면 악은 '무엇으로 기쁨을 원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라는 것은 피조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의 세계가 있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비어있어서 기쁨을 얻으려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끼어들어서 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담을 그릇이 필요하고, 발효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술이 안 돼요.
그런데 마침 인간의 마음이 비어 있어서 무엇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담는 그릇으로서 마땅하거든요. 그리고 발효 효소가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려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원숭이가 썩은 과일 물을 먹고 이상한 몸짓을 하는 것을 보고 먹어봤더니 기분이 좋

아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이 발견해 낸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효소가 된다는 것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돈으로도 기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돈을 담습니다. 돈은 피조물이니까 피조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의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에 돈이 닿으면 돈이 발효한다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돈을 담고 돈으로 기뻐하려는 마음이 효모처럼 임하게 되면 마음 안에 있는 돈이 썩고, 발효돼서 술이 되어버리고 돈에 취해버립니다. 돈에 취해서 사는데 술에 취했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취생몽사, 인상불성의 상태가 되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롯이 딸들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딸과 동침한 사실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돈이 마음에 들어와서 돈 술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있고, 그 돈으로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이 효모 작용을 해서 술이 되어서 마음이 취해버려요. 그래서 돈, 돈 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자식을 담고 자식을 잘 키워서 기쁨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 술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에게 취해서 자식을 잘 키우겠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이게 다 롯이 딸과 동침한 것만큼이나 패역한 일이라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돈 벌고, 맑은 정신으로 자식 키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취한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알고 있죠?
술 취한 사람 중에 자기가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혀가 꼬이도록 취했으면서도 주정을 부리면서도 다 안 취했대요.

요즘 3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대한민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 아마 대한항공 설립자의 손녀인 것 같아요. 소위 재벌 3세입니다.
듣고 보면 자기가 야단친 그 사무장과 승무원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없어서 만나지지도 않고, 검찰에 불려가고 아주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땅콩을 봉지채로 서빙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종사와 관제탑이 교신하며 수백 대의 비행기가 같이 움직이는 공항에서, 이륙하려는 비행기를 세우고 사무장을 내리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 30대 중반의 여성이 취해있었던 거예요.
재벌 3세라는 위치, 부사장이라는 위치, 이 세상에서 피조의 세계에서 자기에게 주어져있는

여건들을 마음에 담고 나서 그 여건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 살다 보니 그게 술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라는 위치가 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술에 취하다보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가, 뒤늦게 깜짝 놀란 것이죠.

이 롯이 자기 딸들이 자기의 씨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절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멀쩡한 정신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술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기쁨을 원해서 이 피조의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애인으로 만났다면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 애인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담긴 애인은 기쁨을 원하는 내 마음에 효모가 되어서 술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애인에게 취해버려요. 그렇게 취했는데 애인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생각에는 당연히 죽여야 마땅하다고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 동안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게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본질상 변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릇 안에 들어간 것들은 가만 놔두면 썩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에 효모가 들어가니 술이 되어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돈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에 취해서 그런 것이죠.
목사님들도 예배당 건축 노래를 불러요. 마음속에 예배당 술이 생긴 겁니다.
롯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참 전무후무한 패역함의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패역함의 이야기가 왜 등장했느냐?
지금 모든 인간들이 아담 타락의 결과로 원죄에 매여서 이 패역함을 날마다 일상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마음이 맨몸 되기를 원치 않아요.
마음에 자꾸 무언가 이 세상의 것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심도 취함의 특징이에요. 걱정도 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마음속에 담아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영원한 세계에서 창조 전부터 있었던 그 만족과 그 기쁨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다 걸려들게 되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담은 술에 취해 있어요.
돈 술, 사업 술, 취미 술, 명품 술, 자동차 술, 예배당 건축 술, 부흥 술...
이 피조의 세계에서 마음에 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담기 때문에 다 술이 되어버리고, 취한다음에 롯이 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채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쳐서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이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에서 돈을 보면, 마음에서 돈이 겉돕니다.
'겉돈다.'는 것은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처럼 큰 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이 독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맨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으로 기쁜 자들에게는 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만 주어져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이 주어지면 그 동안 아무런 불편을 못 느꼈던 삶의 조건에서도, 뭘 자꾸 바꾸고 싶고 새로 사고 싶어 해요. 교회도 재정이 남아돌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그걸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기뻐서 돈 쓰는 재미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내게 주어진 돈들이 공생애의 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돈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채로 돈을 끌어들여버리면, 돈이 술이 되고 돈에 취해버려서 롯이 행한 이 패역한 행동과 말들을 마구잡이로 하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돈 뿐만이 아니죠.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이 땅 위에서 벌어질 일들 전부 다.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내가 선교 사업을 잘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선교 술이 되어서 선교에 취하게 되어버립니다.
선교는 누가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하나님 때문에 움직여지면서 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가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라는 말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세뇌가 되어서 선교라는 말에 의해서(dogma) 움직여지는 것은 결국 자기만족에 준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면서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걸린 겁니다. 우선 선교하기 전에 내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과제입니다. 먼저 나를 선교하라는 거예요. 참되게 나를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를 이용하셔서 선교 활동을 해나가실 테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뛰쳐나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말만 듣고 선교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느끼면서 뛰쳐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맨몸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즉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는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마음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있고, 기뻐하면 그것으로 취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악하고 패역한 말과 행동들을 악한 줄도 모르고 패역한 줄도 모르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도둑질, 간음, 살인 등 눈에 보이는 것들만 패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십니다.
창녀에게도 하지 않았던 욕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향해서 퍼부으십니다. 그 정도로 패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이 술 프로젝트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인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사탄의 술 프로젝트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제가 사탄의 술 프로젝트에 걸려들어서 취중몽사(醉中夢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시며,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마음에 꽁꽁 묶음으로써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어, 하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을 수행해나가시는 공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